

# 2018 KESLI 컨소시엄 협상결과 및 국회 대토론회 소회!

심유정 \_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정보활용 패턴이 인쇄자료에서 전자자료로 변화함으로써 전자자료 구입비가 전체 도서 구입 예산 중 65.5%<sup>1)</sup> 이상을 차지한다.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경우 80~90% 이상을 나타내는 곳도 있다.

자료구성에서 전자자료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자자료의 확보방안도 다양하다. 그 중,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인 컨소시엄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크게 3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연구·의학·기업체 중심의 KESLI 컨소시엄, 대학주도의 K CUE 컨소시엄, 의학주제의 KMLA 컨소시엄이 있다.

## 1. 컨소시엄의 변천

1999년 전국의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보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원 주관 전자정보국가컨소시엄(KESLI : 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이 발족하였다. 2006년 주관기관이 KISTI로 이관되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컨소시엄 제안품목과 참가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컨소시엄의 영향으로 구독종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저널당 구독가격이 감소하여 학술 연구환경은 개선되었지만, 해외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빅딜(Big Deal) 패키지 계약으로 높은 가격 인상률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1) 교육부 : (2013~2017)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구입비율

이에 반해 국내 사정은 학생수의 감소 및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의 도서구입비는 줄어들고, 관종의 관계없이 대부분의 도서관 예산이 동결 내지는 축소되어 빅딜 출판사의 컨소시엄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2014년 Springer 협상결렬, 2015년 신원데이터넷과의 협상결렬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6년 대학도서관들은 KERIS(교육부 소속) 컨소시엄으로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2016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에서 KISTI와 KERIS로 이원화되어 있던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조정하여 KISTI의 KESLI 컨소시엄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조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학도서관들은 KUC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컨소시엄으로 분리되었다. 이에따라 전문도서관과 의학도서관 등 대학을 제외한 기관들만 KISTI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KESLI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KISTI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시작하여 ‘전자정보 공동구매 지원체계’로 방향성이 변경되었다.

## 2. 2018 KESLI 컨소시엄 협상 결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학도서관연합회(대도연)와 KISTI는 협상 일원화를 위하여 막판까지 노력하였으나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KESLI와 KCUE컨소시엄 운영위원들은 상호협력하고 출판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하였다.

KESLI 운영위원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12인,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1인, 총 13인으로 2018년 8월 10일에 구성되어 발족하였다. 협상품목으로는 중점 11, 비중점 20, 신규 8품목으로 총 39품목이 제안되었다. 납품실적, 학술적 전문성 미비,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신규로 제안된 품목 중 6건은 기각 처리했다.

2018년 KESLI 컨소시엄 협상 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점 11품목 협상 결과>

번호	2019 컨소시엄명	최초인상률	최종인상률	비고
1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19	5%	옵션1 : 1.8% 옵션2 : 1.7% 옵션3 : 1.2%	
2	Royal Society of Chemistry 2019	15.6%	14.2%	
3	Science / AAAS 2019	Price Cap 9%	Price cap 5%	
4	Taylor & Francis Online Journal 2019-2021	5.5%	3.5%	
5	Wiley Online Library 2019-2021	다년:4.2%,4.1%,4.0% 단년:4.5%,4.5%,4.5%	다년:2.65%, 2.75%, 2.75% 단년:3.04%, 3.04%. 3.04%	대도연 추가협상
6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2019	공공, 연구 9%,8% 기업체 9%,15%	공공, 연구 3% 기업체 6%	
7	American Physical Society 2019	9%(Tier1)	4%(Tier1)	
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2021	7%	4.7%	
9	DBpia(Non-Academic) 2019	3.9%	단년3.3% 다년 2.8%	
10	OECD iLibrary 2019	5%	2.9%	다년(2년)
11	OSA Publishing 2019	OIB : 7% OIBP : 5%	OIB : 4% OIBP : 2%	

<비중점 20품목 협상 결과>

번호	2019 컨소시엄명	최초인상률	최종인상률	비고
1	ABI/INFORM Complete 2019	2%	1.8%	
2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9	6%	3.0%	Consortium Joining Fee기준
3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019	옵션 1: 6% 옵션 2: 6% 옵션 3: 6% 옵션 4: 6%	옵션 1: 3% 옵션 2: 0% 옵션 3: 0% 옵션 4: 3%	

4	BioOne 2019	4%	기존 : 1.5% 신규 : 3%	
5	Cell Press 비대학 2019	4.8%	4.8%	
6	EBSCO Customized Collection(ECC)KESLI 2019	0%	0%	
7	E-CIP컨텐츠서비스 2019	0%	0%	
8	Institute of Physics 2019-2021	단년 : 4%	단년: 4% 다년: Price Cap 3%	단년조건 신규제안
9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s(JoVE)2019	옵션1 : 3% 옵션2 : 0%	옵션1:(갱신기관)0% (신규기관)3% 옵션2 : 0%	
10	J-STEJ 2019	옵션1 : 0.22% 옵션2:-5.75%~2.73%	옵션1 : 0% 옵션2:-5.75%~2.73%	
11	Online Journal Effective Solution 2019	0%	0%	
12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ic of Science 2019	2%	2%	
13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2019	5%	2%	
14	S2Journal Plus비대학2019	0%	0%	
15	ScienceDirect비대학 2019	3.9%	3.9%	
16	SPIE Digital Library 2019	0%	0%	
17	Thieme E-Journals Package 2019	3.9%	3.1%	
18	Tym Online Journal Collection 2019	0%	0%	
19	삼일회계법인DB(삼일아이닷컴)-조세/회계/법률/재경실무 2019	0%	0%	
20	중국학술저널(China Academic Online Journal) 2019	0%	0%	

#### 〈신규 8품목 협상 결과〉

번호	2019 컨소시엄명	최초인상률	최종인상률	비고
1	국제표준 ISO 2019	옵션1 할인율:35% 옵션2 할인율:30%	옵션1 할인율:38% 옵션2 할인율:32%	타결
2	모아진 전자잡지(국내) 2019	0%	0%	타결

3	Bentham Science Publishers 2019	사유 : 납품실적 미비	기각
4	K2R 연관검색어 API 2019		기각
5	Real-time MARC Solution 2019		기각
6	Kdiscovery학술정보분석 서비스 2019	사유 : 학술적, 전문성 미비	기각
7	로제타스톤 24개 언어 패키지 2019		기각
8	모아진 전자잡지(해외) 2019	사유 : 추가비용 발생	기각

### 3.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공론화의 장! 국민 대토론회

2018년 12월 7일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지 국회에서 '연구역량 고도화 를 위한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에 대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전문도서 관협의회 전자정보위원장이면서, 수년간 컨소시엄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 어, 전자저널 구독 업무에서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장이 기에 기대가 컸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주도로 개최되었지만 대학도서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구, 공공기관, 의학도서관 등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 2층에 자리한 대회 의실을 꽉 채웠다.

국회의원으로는 이종걸, 서형수, 김현아, 최경환, 원해영, 김세현, 이상민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고, 신기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지원을 하였다.

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정향우 과장, 교육부 학술진흥과 윤소영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한성일 과장등이 참여하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전자정보비상대책위원회 서이종 위원장 사회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백철우 경영본부장, 기초연구연합회 김승환 회장,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 최재성, 서울대학교 서정욱 교수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컨소시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본부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홍석 수석연구위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우찬제 회장이 차례로 발표를 하였다.

국회 대토론회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 1) 협상체제

국가컨소시엄으로 시작된 KESLI체제는 매년 가파르게 인상되는 구독비용과 구독조건의 한계에 반해 국내사정은 학생수 감소, 반값 등록금, 도서관의 재정적 압박 가중으로 관중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도서관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에 부딪혔다. 또한, 대학에서는 주관기관인 KISTI에 대해 참여기관의 요구보다는 공급사와 밀착된 행태를 보이고, 기관들의 불만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으며, 협상 데이터 관리부실에 따른 불만이 증폭되었다. 결국, 80%이상 비용을 지불하는 대학도서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학중심의 KCUE 컨소시엄으로 분리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성일 연구기관지원팀 과장은 KISTI가 컨소시엄 운영에서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며,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윤소영 학술진흥과 과장은 대학이 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야만 전자저널 문제가 해결되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이전에도 학술자원법이 있었고 학술자원 관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향후 2차 대학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학도서관이 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정향우 제도기획과장은 2016년에 KERIS와 KISTI가 컨소시엄 업무의 중복성으로 KISTI로 기능조정하여 일원화 하였으나 위와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니 현상태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개선 가능한지 정확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 현재상태에서 문제를 보완할 것인지 ㉡ 원래대로 원상복귀할 것인지 ㉢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지 국가차원에서 컨소시엄 추진체계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재정지원은 그 이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하였다.

대도연에서는 KCUE컨소시엄을 KERIS에서 통합운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KISTI에서는 수요기관 대표, 주관기관 대표, 정부부처 대표가 모여 가칭 국가전자정보위원회를 구성하고, KISTI, KERIS 공동주관으로 국가컨소시엄의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 2) 국가라이선스 확보 등 재정지원

연구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전자자원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보가 필요하다. 예산사정에 따른 정보 차별없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R&D예산(2018년 약 20조원)의 0.5%(약 1,000억원)만큼의 투입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도 빅딜 출판사에 대응하여 독일에서는 엘스비어를 보이콧 하였고, 스웨덴에서는 엘스비어를 구독 중단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누구나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OA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는 OA 전환을 선언하였다. 우리도 더 늦기전에 국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 윤소영 과장은 대학에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학 예산분배시 도서관이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모색하겠으며, 대도연에서 요구하는 이용률 저하로 삭감된 (Cell)대학라이선스 20억은 예산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OA관련 데이터를 위한 시스템은 범부처적 협업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정항우 과장은 전자정보 예산은 대학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분배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으며, 국가적으로 R&D관련 인프라 지원을 위해 제도적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KISTI에서는 과월호 위주로 전자저널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 3) 선진적인 구독모델 개발 및 컨소시엄 지원 방안

협상에서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형 상업출판사들은 정보와 법리적으로 무장한 탄탄한 협상단에 비해 현장 사서들이 매년 단기간 파견되어 구성되는 운영위원과는 차이가 많다. 그나마 협상 경험자와 사서수가 많은 대학에 비해 비대학 실상은 더욱 낙후되어 있다. 컨소시엄 시작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여, 협상에서는 공급사 제공 통계에 의존하고 있어, 시작부터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이다. 근본적으로 독과점 정보를 생산하는 출판사가 '갑'이고,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들이 '을'의 입장인 상황에서는 유리한 협상 도출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학술지 구독을 현재의 출판사 주도에서 오픈액세스(OA) 출판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로드맵이 시급하다.

대도연 우찬제 회장은 전자저널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협상위원 교육, 지원,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등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요청하였고, 교육부 윤소영 과장은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단기적 교육보다 심층적 교육이 필요하고, 한국형 구독모델 개발 계획을 갖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서정욱 교수는 OA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기초연구연합회 김승환 회장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전자정보에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도서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송재준 미래전략부장은 연구기관도 전자정보에 대한 격차가 심하며, 산업체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협상체제 일원화로 협상력 강화 및 국가차원의 OA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라고 했다.

#### 4. 국민 대토론회 소회

자유질의 시간에 다행히 발언 기회를 얻어 대학라이선스만이 아닌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국가라이선스’ 추진과 ‘통합컨소시엄 운영’을 요청하였다.

대도연 발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역량을 고도화를 주장 하면서 국가라이선스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들으면서 헛갈리는 부분이 국가 라이선스라 말하면서 대학의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라이선스 확보는 중요하다.

컨소시엄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대학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구, 공공기관, 의학도서관등은 구독기관수, 구독금액 등이 대학에 비해 규모도 작고 더욱 더 열악한 상태이다. 대부분 1인 사서 등 소수의 인력만이 근무하고 있어 협상에 필요한 인력차출과 역량강화에 애로사항이 많다. “Buying Power”가 강력한 협상도구로써, 유리한 협상 도출과 노력 최소화를 위해서는 통합 컨소시엄으로 협상 창구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자인 대도연 전자정보비상대책위원회 서이종 위원장도 협상체계 일원화 및 국가라이선스에 대해 동감하고 대도연 발표자료에서 국가라이선스는 대학라이선스를 가리킨다고 시인하였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대학과 비대학을 포함한 컨소시엄 통합체제로 개편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대형 출판사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주도와 지원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1~2년안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대토론회는 전자저널 구독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며 국가차원의 문제로 끄집어내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계, 연구자 사이에서도 도서관 문제로만 치부하고 전자저널의 인상률과는 반대로 구독 예산은 축소되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앞으로도 통합컨소시엄, 재정지원, OA출판으로의 전환 등 한국형 구독모델을 개발하고 변화하려면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한번의 토론회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해결을 위한 위대한 한걸음이었다고 소회한다.